꾸말전제교실

내 마음 속에 별과 우주를 담다…

경상남도 과학교육원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과학탐구의 장

2007년 11월 1일 김해 진 영읍에 문을 연 경상남도과 학교육원은 천연기념물 제 395호로 지정된 화석을 원 형 그대로 보존한 화석문화 재관과 자연사관, 과학관, 천체투영관 및 천체관측실, 발명교육센터, 영재교육지 원센터 등에 최첨단 과학교 육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직 접보고, 만지고, 느끼는 과 학체험교육을 운영하여 창 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있

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첨단시설을 갖춘 새로운 터 전에서 내실있는 교원연수 와 교육지원으로 우주시대 에 걸맞는 기초과학 교육의 요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 으며, 학생과 학부모, 일반 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과 학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 고 있다.

김해 진영읍 경남과학교육원, 주말천체교실 인기 학생·일반인 대상 홈페이지 예약…월 1회



◆ 간이망원경 만들기에 참여한 어린이.

경상남도과학교육원(원장 어윤 수)은 우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과학적 탐구능력을 신장 시키기 위해 '2010년도 천체관측 교육'을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 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실시하고

천체관측교육은 학생과 일반인 대상으로 나누어 이뤄지고 있으 며, 학생은 학교공문을 통해 일반 인은 매월 1일 오후 1시(3월부터 오후2시)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80명(가족단위 6명)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개통 1시간 만에 모집인원이 모두 마감이 됐을 정 도로 시민들의 호응이 대단하다.

천체관측교실은 주로 달, 행성, 별자리 관측을 대상으로 하며, 너 무 밝은 달빛은 별을 보는데 오히 려 방해가 되고 달의 크레이터(운 석이 떨어진 구멍이나 분화구)를 보기에도 눈이 부셔 적당치 않기 때문에 달이 초승달이 되는 음력 5일을 전후 주말 저녁 7에서 9시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내용은 ▲육안관측 교육 ▲ 천체망원경을 이용한 천체관측 전 문교육 ▲천체투영관 교육 등으로 이루어지며 당일 기상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실내교육 프로그램 으로 대체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학생 은 자신이 400년 전 망원경으로 목성을 관측한 갈릴레이가 된 것

같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으며 함께한 학부모는 "별의 색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면 서 "각박한 사회생활 속에서 아름 다운 별을 지켜보니 문득 반성하 는 마음이 생긴다"고 소감을 전했 다.

함포중 이중화 교시는 "교육에 참여한 어린이와 학부모들의 뜨거 운 관심과 열기가 널리 전파돼 선 진 우주강국으로 가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교육원 성기홍 교육연수부장은 "별을 바라보는 어린이의 맑은 눈 망울을 보면 무한한 희망과 가능 성을 느낀다"면서 "천체관측교육 이 우주에 대한 꿈을 꾸게 하고, 그것을 비탕으로 우주과학이 발달 할 수 있는 작은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천체관측교육은 지난해 5월 5 일 어린이날을 기념해 '2009 어린 이과학체험한마당'을 시작으로 총 6회를 실시했으며 총 480명의 인원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고 있

한편, 교육원의 장비를 이동 과 학차에 싣고 '찾아가는 천체관측 교육'도함께 실시되고 있다.

과학행사 및 지역 예술행사 시 특정지역과 일자를 지정해 육안 및 천체망원경을 활용, 기족과 함 장에서 실시되고 있다.

강내영 기자 kny@eduyonhap.com



♦ 태앙망원경 앞에서 담당 지도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는 학생들





